

동남아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 권 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개발협력팀 연구위원
ykwon@kiep.go.kr
- 김태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동남아팀 부연구위원
tykim@kiep.go.kr
- 이재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동남아팀 전문연구원
jhlee@kiep.go.kr
- 김유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동남아팀 연구원
ymkim@kiep.go.k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동남아시아 지역은 국별로 경제규모와 경제발전단계가 상이하고, ASEAN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경제 통합이 본격화되면서 역내 개발격차 완화와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개발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
 - 동남아 국가 중에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동티모르는 최빈개도국으로 분류되고, 베트남 및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중소득국이지만 고용 확대 및 인력개발, 공업화 및 인프라 확충 등 많은 개발과제에 직면해 있는 실정임.
 - 90년대 중반 이후 ASEAN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본격화되면서 역내 개발격차 완화와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개발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 최근에는 2015년 ASEAN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기존 ASEAN 회원국과 신규가입국인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국가 간의 역내 개발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지역통합정책과 연계한 개발격차 완화사업 확대중임.
- 이에 우리 정부는 신아시아 외교구상을 통해 동남아시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역내 빈곤퇴치와 개발격차 해소에 중점을 둠.
 - 2009년 한·ASEAN 특별정상회의 및 2011년 한·메콩 외교장관회를 개최하여 ASEAN 역내 개발격차 완화에 노력 중임.
 - 동남아 지역에 대해 양자간 ODA의 20~30% 수준을 배분해 왔고,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6개국 이 중점협력국으로 지정되어 ODA 배분에 정부의 우선적인 정책방향과 기초를 반영함.
- 따라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개발원조 확대는 지속될 전망이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역별 원조전략이 요구됨.
 - 특히 국제적으로 개별 프로젝트 접근보다는 종합적 프로그램 접근 방식이 강조되고 있어 지역별 특성에 맞는 ODA 협력프로그램 도출이 시급함.
- 본 연구는 개발수요가 증가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한국의 ODA 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개발수요를 분석하고 분야별 개발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동남아 지역을 대상으로 적정협력분야를 도출하기 위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유망협력분야와 우선 순위를 비교·검토하고, 성장잠재력이 크고 개발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한 ODA 추진방향과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 대외의존도가 높은 외자주도형 발전전략을 추진하면서 ASEAN 역내 개발격차는 매우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경기불안성이 심화됨에 따라 역내 개발격차 문제는 보다 확대되고 있음.
 - 소득수준에 따라 최빈개도국(LDCs)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동티모르가 포함되고, 저중소득국(LMICs)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이고, 고중소득국(UMICs)은 태국, 말레이시아 등으로 분류됨.
 - ASEAN 후발가입국인 CLMV 국가의 빈곤지표를 비교해 보면, 하루 2달러 미만의 저소득층 비율이 라오스 76.9%로 가장 높고, 동티모르 72.8%, 캄보디아 57.8%, 인도네시아 53.8%에 달하고 있음.

[표 1] 동남아 주요국의 주요 개발지표 비교

	2\$/일 이하 인구	1.25\$/일 이하 인구	지니계수	기대수명	유아사망율 /1000명 (2008년, %)
캄보디아	57.8	25.8	44(2007)	61	69.3
라 오 스	76.9	44.0	33(2002)	65	47.5
미 안 마	-	-	-	61.6	54.7
동티모르	72.8	37.2	32(2007)	61.1	51.1
베트남	48.4	21.5	38(2006)	74.4	19.9
필리핀	45.0	22.6	44(2006)	71.8	26.5
인도네시아	53.8	21.4	57(2007)	70.8	30.7
태국	11.5	2.0	42(2004)	68.9	12.5
말레이시아	7.8	2.0	38(2004)	74.4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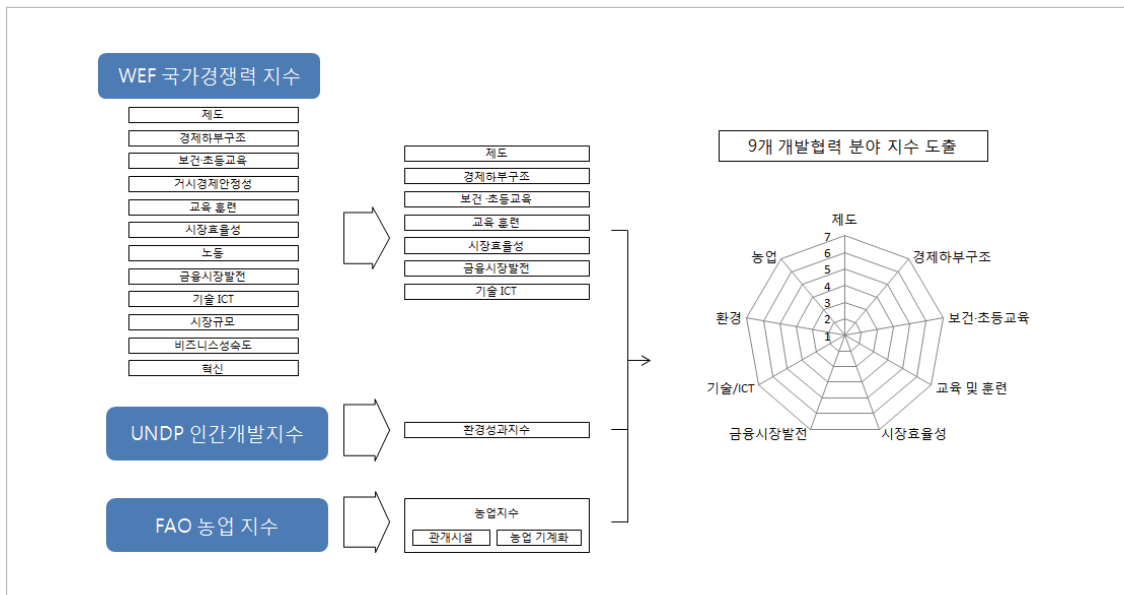
주: () 안은 조사연도.

자료: OECD(2011), Society at a Glance: Asia/Pacific 2011 참고.

- 국가 발전단계가 서로 상이한 동남아 개도국 간의 개발격차를 정량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론이 제시됨.
 -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활용해온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분석(Business Portfolio Management)을 이용함.
 - 본 연구에서의 개발수요 분석방법은 동남아 국가들을 크게 3단계로 구분하여 분석 대상국과 상위 발전단계 국가군과의 개발격차를 지수화하여 상위 단계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개발수요를 도출함.

- 분야별 개발격차를 측정하는 지표로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경쟁력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1-2012』의 분야별 자료, UNDP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의 환경성과지수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UN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의 농업관련 지수를 활용함.

[그림 1] 개발협력 수요분석을 위한 부문별 경쟁력 지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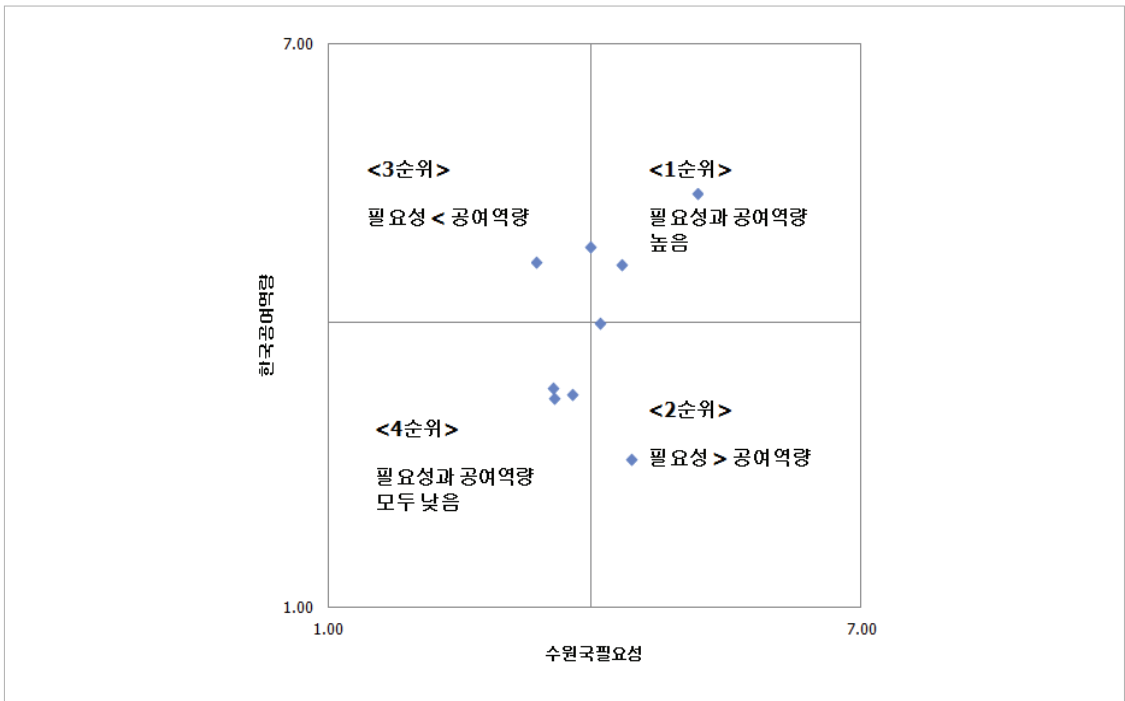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비교분석대상국과 한국과의 개발격차는 해당 공여국에 대한 한국의 공여역량을 파악하여 최종적으로 분야별 개발협력 격차를 나타내는 '수원국의 필요성' 과 '한국의 공여역량' 을 동시에 고려함.
- 동남아시아 수원국의 적정 협력분야와 우선순위를 정량적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본 연구에서는 WEF의 국가발전단계 분류법과 UN과 DAC의 기준에 따라 동남아 국가간의 개발 격차를 측정하기 위하여 소득그룹별로 분류함.
 - UN이 최빈국으로 분류한 캄보디아와 동티모르, 중소득국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으로 구성됨.
- 최빈개도국인 캄보디아, 동티모르에 대한 유망협력분야는 경제·사회 발전의 기초가 되는 경제하부구조, 고등교육·훈련, 보건 및 초등교육부문임.

-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와의 개발협력 사업에서는 경제인프라를 비롯해 공업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고등교육·훈련, 기술·ICT, 금융시장발전, 제도 부문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동남아 5개국(캄보디아, 동티모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수원국 필요성 및 한국 공여역량 지수의 평균치로 분석한 결과 또한 경제하부구조에 대한 개발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2] 개발격차 지표 분석을 통한 우선순위 선정방법



자료: 저자 작성.

- 동남아 개발수요에 대한 정량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공여역량과 수원국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농업 및 농촌개발, 인프라 확충 및 지역개발, 기후변화 및 환경 분야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표 2] 동남아 국별·부문별 개발수요 분석결과

발전 단계	국명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최빈국	캄보디아	경제하부구조 고등교육·훈련, 농업, 보건·초등교육	환경	기술·ICT	금융시장발전, 시장효율성, 제도
	동티모르	경제하부구조, 기술·ICT, 고등교육·훈련, 보건·초등교육	금융시장발전	농업	시장효율성, 제도, 환경
중소득국	베트남	경제하부구조, 고등교육·훈련	금융시장발전, 시장효율성, 제도	기술·ICT, 농업, 보건·초등교육	환경
	인도네시아	경제하부구조, 기술·ICT	금융시장발전, 시장효율성, 제도	교육·훈련, 농업, 환경	보건·초등교육
	필리핀	경제하부구조	금융시장발전, 시장효율성, 제도	고등교육·훈련, 기술·ICT, 농업	환경
평균	5개국 평균	경제하부구조, 고등교육·훈련, 기술·ICT, 보건	금융시장발전	농업	제도, 시장효율성

주: 필리핀 보건 부문은 수원국필요성, 한국공여역량 지수 모두가 중위값에 해당되어 어느 영역에도 포함되지 않아 비포함.
자료: 저자 작성.

3. 정책 제언

● 농업 및 농촌 개발에 대한 원조 지원 방향

- 농업 부문의 경우 우선순위에서 3사분면에 속하여 동남아 국가의 개발수요보다는 우리의 공여역량이 높은 분야임.
 - 캄보디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3순위에 불과하지만, 농업 ODA는 한국의 선진화된 농업기술과 개발경험을 토대로 비교우위가 있는 대표적인 분야임.
- 농업부문이 동남아 국가경제에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비교우위도 높게 나타나 원조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유망협력분야임.
 - 개별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것과 더불어 프로젝트가 끝난 이후에도 그동안의 협력네트워크를 유지하고 동시에 사후관리를 지속하는 중요함.

● 인프라 확충 및 지역개발 분야

- 경제개발과 공업화를 위해 필수적인 인프라 확충은 동남아 주요국에서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분야임.
 - 정량적 분석 결과, 우선순위로 분석된 인프라 및 지역개발 분야에 대한 전략적 패키지형 사업수행체제 구성이 필요함.

- 한국에 있어서도 공여역량이 높아 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을 상호연계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할 것임.
 - 특히 경제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CLMV 국가들에 대한 지원은 지역개발과 연계되어 빈곤퇴치와 역내 개발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임.
- 인프라 확충사업의 경우 주요 정책과제는 유·무상 통합의 국별 지원 프로그램을 작성함으로써 수원국의 개발수요에 부합하는 중점지원분야와 유망사업을 적극 발굴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함.
 - 유상자금협력, 기술이전, 기술협력, 인프라 운영 및 관리, 민간기업의 참여확대를 위한 보증, 보험 및 용자의 확충 등 다양한 차원의 방안을 강구해야 함.
 - 또한 민간부문과 연계한 패키지형 사후관리체제 구축에 중점을 둠으로써 원조효과성을 강화시켜야 함.

● **기후변화 및 환경분야대한 원조 지원 방향**

- 최근 유망협력분야로서 부상하고 있는 기후변화 적응사업 지원과 환경분야 협력은 빈곤감소, 식량 안보,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등 다양한 개발분야와 상호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ODA 유망협력분야로서 부상
 -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을 위한 협력가능성이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고, 동남아 국가들을 주요 대상으로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프로그램도 본격적으로 추진중임.
-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EACP: East Asia Climate Partnership)’을 활용하여 녹색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통하여 캄보디아,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의 녹색성장정책 지원

● **교육 및 훈련분야에 대한 원조 지원 방향**

- 교육 및 훈련분야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교육의 질이 낮고 국가간 격차도 커서 교육단계별로 특화된 개발협력 지원이 필요함.
 - 교육 및 훈련분야의 경우 아세안 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중등 및 고등 교육분야에 취약점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 전수가 필요함.
- 초·중등 교육분야의 역량강화 및 교원 양성 지원, 고등교육 및 직업기술교육의 내실화에 중점적인 지원 강화

